

공화국의 기체파와 승리와 번영의 70년

황북땅의 눈부신 전변은 수령복을 노래한다

로동당시대에

천지개벽의 새력사를 펼친 황해북도를 돌아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은 단순히 래를 불고 나서 자란 고향산천이 아니라 인민들의 험난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는 곳이며 그것은 수령에 의하여 마련됩니다.』

동쪽의 아호비령산줄기와 그 옆으로 뻗어내린 언진산줄기, 멀악산줄기

의 굽이굽이를 지나고 황주간등별파 미루법, 미곡법 등의 논과 밭을 따라 달리는 황해북도기행길에서 시종 머리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출발에 앞서 만난 도학명사적판일군의 이야기였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적으로 제일 못사는 고

장의 하나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적으로 제일 못사는 고

생명수 출렁이니 〈풍년가〉 울린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70년력사의 전변상을 전하기 위해 뜻깊은 기행길에 나선 우리에게 황해북도인민들이 제일 많이 떠려준것은 물에 대한 확신이다. 바다 맑고 강이 맑은 내륙지대에서 어느 고장에서나 물과 관련한 가슴아픈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는 황북땅에서 지난날 물에 대한 농민들의 갈망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 황해북도는 수많은 인포수를 저수지들이 생겨나 생명수 흐르는 땅, 관개면적이 많은 도의 하나로 되었다. 하여 우리의 기행은 우리 나라의 관개체계인 서흥호수와 함께 기본수원지가 있는 곳으로 향해졌다.

동더오는 아침 봉산군의 구산에 이르니 황주간 등장의 푸른 숲을 한 폭의 그림처럼 품어안고 쉬워임이 출렁이는 산중의 호수가 나타났다. 지난 수십년간 황해북도농업의 비약적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서흥호였다.

봉산군, 서흥군, 편진군, 은파군과 접하고 누비려 이득하게 펼쳐진 대인공호수는 황해북도의 『바다』라고 할 만한 파시 장관이었다.

아름다운 대자연에 그만 냄을 빼앗기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한 걸음이 하는 말이 서흥호의 넓은 수역과 물길을 다 돌아보자면 하루에 100회나 넘는 걸는다면 그것이 있다. 수천구들을 헤쳐놓는 것이었다. 수천구들을 헤쳐놓는 물길이 빙어간 수천리에 달하는 물길로 이어진 서흥호관개체계는 지난 수십년간 봉산군, 은파군의 벌들하고 미육법, 연한철봉, 연한철봉을 비롯한 도의 주요별들에 실로 막대한 양의 생명수를 보내주어 알록중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느라니 가렬한 전화의 나날 최고사령부에서 작전지도를 펼치시고 황북땅의 절울기가 될 서흥호자리를 헤아주시였고 전후에는 현지에 나오시어 언제위치를 다시 확정해 주신 수령님의 어려운 영상이 우연이 안겨왔다.

『그때 아지도우. 우리 황칠의 쇠풀내에 물을 품고 헤아리고 하시며 이렇게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지난날에는 그 누구도 농민들에게 물을 줄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로동당시대에는 농민들에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하늘도 주지 못한 물을 동당이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우리 수령님의 의지에 의해 태어난 내륙지대의 『바다』, 황북의 생명수 서흥호!

마를 줄 모르는 그 달리던 첫줄기는 깊은 땅속도 뛰어지고 높은 등판들로 담아오르면서 황해북도의 혼동벌들로

의 굽이굽이를 지나고 황주간등별파 미루법, 미곡법 등의 논과 밭을 따라 달리는 황해북도기행길에서 시종 머리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출발에 앞서 만난 도학명사적판일군의 이야기였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적으로 제일 못사는 고

장의 하나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적으로 제일 못사는 고

장의 하나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적으로 제일 못사는 고

장의 하나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으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으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으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으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으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으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으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으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으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으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으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으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으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으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으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으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으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으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으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을 이르는 끝마다에서 현실로 절감한 우리였다.

기행의 나날 우리는 장장 70년간 인민을 품어 암고 인민의 '님'원을 빛나게 실현해온 우리 공화국의 세기적변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황해북도가 어디 가나 사회주의선경을 걸친 자랑많은 도 되었지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나라으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황북땅의 천지개벽

인간을 도덕적으로 부패시키는 자본주의 사회

오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남편이 안해를, 자식이 부모를,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이는 것과 같은 무서운 살인범죄들이 괴리를 끌고 일어나고 있다. 천혈육들 사이에도 죽임내기를 하는 껌뻑한 현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덕적부폐가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고도의 문명」에 대한 뛰어들어놓은 것은 기만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판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부르조아도이다.

도덕은 절히 제 금속성격을 띠게 된다. 해당 사회의 도덕이 진보적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자막대기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에 판계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에 맞는 고상한 도덕이 보편적인 것으로 되는 사회야말로 가장 진보적인 사회이며 국소수의 착취계급의 탐욕과 더기적 목적실험에 부합되는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는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사회이다.

미국은 비록 많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도덕적 가치관은 인민대중이 아니라 개인의 요구와 리에 판계만을 중심으로 놓고 세워진 판점과 맹장이다.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진리이고 개인의 리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행동의 가치를 가진다는 도덕관념이 사람들의 머리속에 둘째처럼 굳어져 있다.

때문에 그들은 개인의 리익을 사회와 집단의 리익보다 우위에 놓고 남이 삶에 하면 잘난 건, 남에게 해가 되

든다는 상관하지 않고 제 리속만 행기려 한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며 무제한한 「자유」와 향락을 누리면 된다는 것이다. 저어 자기 개인을 위해 다른 사람과 집단을 희생시키는 것을 있을 수 있는 일로, 용당한 것으로 여겨고 있다.

《개인의 리익은 신성 불가침이니》,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단한 개인주의에 기초한 부르조아도에 오염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판점이다. 이러한 그릇된 사고방식과 판점이 사회생활 전면에 어떤 해독영향을 미치는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실태가 그대로 말해 주고 있다.

부르조아도덕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갖 사회악이 편을 치고 부패타락한 생활풍조가 범람하고 있다.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봉우하는 전정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동지적단결과 협조, 서로 돋고 이끄는 참다운 도덕판계가 확립되어 사회발전을 힘있게 추동한다. 그러나 부르조아도덕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부패타락시키면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도덕적 부폐는 반동적인 통치계급에 의해 더욱 조장, 촉진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도덕적 부폐는 반동적인 통치계급에 의해 더욱 조장, 촉진되고 있다.

그는 대로씨아재제준비는 이 조약에서 미국의 탈퇴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대로씨아재를 유포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한편 대로씨아재의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로씨아재제정 책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 거리마사일 철체 조약에 대한 조치들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딸라의 독점으로 대로씨아재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위험하다고 하면서 때문에 딸라와 단

이란에 대로씨아재제정 책을 준다

고 있다. 이를 위하여 반동적이며 반

최근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 3·8 등을

제기로 대학살만행의 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폭발하였다.

민주당들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어폐

한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6월민주

항쟁에 승차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대 학살만행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시도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